

포천연극 발전의 새장

포천중문의과대학교 포천연극제 첫 출연

(사)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희용)가 지난 24일 대진대학교 예술관에서 개최한 제6회 포천연극제가 왕방초등학교의 오즈의 마법사를 비롯 5개 작품이 무대에 올라 포천연극 발전의 새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연극제는 관내 초·중학교는 물론 대학 연극이 한 무대에서 선보여 포천연극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이유성 포천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 이천복 포천시의회원과 윤우영 대진대학교 교수, 홍용표 포천중문의과대학교 교수, 강병수 선단동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개막식에서 이희용 지부장은 "우리는 긴 시간동안 내고향 포천의 연극을 정착시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 하였다"며 "오늘 연극제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무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무대는 왕방초등학교(교장 한무송)의 오즈의 마법사(연출 김진모)가 첫 무대를 장식했고 이어 포천중문의과대학교(총장 김병수)의 대역배우(연출 이지영), 경북중학교(교장 정일영)의 위자료(지도 안영숙), 관인초등학교(교장 강재일)의 장군의 동상(연출 심은행), 대진대학교(총장 홍기형)의 맥베드(연출 장영선) 등이 무대에서 선보였다.

포천연극제는 포천에서 연극활동을 하고 있는 순수한 아마추어 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대진대학교 연극영화과는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연극의 진수를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연극팀의 연극은 포천연극제에 첫 출연했으며 이번 연극제는 포천에 포천문화의 새로운 장르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2005년도 포천시 문화예술지원사업

강구원 작품전 등 7개 사업에 1천550만원 지원



지난 22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포천시는 지난 22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0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대상자 선정은 지난 9월22일부터 10월21일까지 공개모집한 11건의 신청사업자중 7개 개인 및 단체가 선정돼 2005년도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포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조성하여 이자발생분을 재원으로 포천시민 수혜위주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하여 1개 사업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해 왔다. 이번 지원대상사업은 개인사업자에 게 1백50만원, 단체사업자에게는 2백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이날 지원금 선정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이제까지의 지원금액 균등지급의 원칙보다는 포천사회에 끼친 영향과 행사나 활동의 인지도, 사업내용 등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의견이 개진돼 주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선정된 200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사업 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개인 ▶강구원(우연의 지배-탈 작품전) ▶박영울(제18회 개인전) □단체 ▶예진목연회(대표 양영옥) 예진목연회 정기회원전 ▶한국전업도예가협회(대표 구자용) 제4회 한국전업도예가회전 ▶마홀남성합창단(대표 최치선) 제12회 정기연주회 ▶포천출신조각가 모임(대표 김정미) 포천현대조각전 ▶마홀문학회(대표 손진홍) 마홀 제16집 발간사업

백성주기자 paek1031@nate.com

“포천이 중단 말은 풍편에 넉넉 듣고...”

2004포천시립민속예술단 정기공연

오는 12월 5일 포천반월아트홀대극장에서 우리민속 고유의 멋과 흥겨움의 세계가 연출되는 무대가 마련된다. “포천이 중단 말은 풍편에 넉넉 듣고...”라는 주제로 펼쳐질 이번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제2회 정기공연은 지난해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민속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지난해 시 승격과 함께 창단된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은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도공연, 청소년 문화 예술 봄소풍 잔치, 청소년 체험학교



12월5일 포천반월아트홀대극장에서 개최되는 2004 포천시립민속예술단 제2회정기공연 포스터.

등 30여 차례의 공연을 통해 포천시민에게 우리 문화의 멋을 전했으며, 일본자매 도시방문 공연, 서울명동거리축제공연 등을 통해 포천시 문화 홍보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1031@nate.com



경북중학교 연극부 '위자료' 공연 모습.

문화칼럼

문화의 경쟁력



유 왕 현

광릉숲 문화의 거리를 가꾸는 사람들 회장

문화(文化)의 사전적 의미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였는데, 나중에 교양·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는 저서(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1871)에서 “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다.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침입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역사·문화의 단절을 경험하였다. 서구 국가들은 수백년에 걸쳐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져 전통문화의 보존이 용이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수십년 만에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배척하면서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우리의 전통마을과 가족, 먹거리 등을 서구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현재는 각 지자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그동안 경제개발의 뒀안길에서 잊혀져간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역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필자는 ‘광릉숲 문화의 거리를 가꾸는 사람들’의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02년부터 매년 ‘광릉숲 문화의 거리 정월대보름축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농경 사회에서 이뤄지던 전통적인 놀이

“문화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다”

문화(숯대사르기, 떡메치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를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우리의 전통문화도 충분히 관광 상품화 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예술·문화인들의 협조, 지역언론, 방송의 적극적인 지지와 포천시의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러한 전통 문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던 동인(動因)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은 각국의 쌀 수입 개방 압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추곡수매제도”도 폐지될 예정이어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마을 마을로 선정된 여러 마을에서 희망을 찾아 볼 수 있다. 경남 남해의 다랭이 마을은 바닷가에서 시작된 가파른 절벽위로 수백개의 계단식 논과 45°경사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농토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려고 산비탈을 깎아 만든 계단식 다랭이 논은 크기와 모양이 제 각각이고, 언덕따라 생겨난 꼬불꼬불한 논길은 가다가 끊기고 그 흔한 트랙터 하나 없는 마을이다.

이 다랭이 마을에 가면 농가에 머물면

포천시의 교동마을 등은 문화의 상품화와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한다.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대비해 문화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문화의 산업화를 도모해야 한다. 문화의 경쟁력 확보에 의한 문화의 산업화는 소득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이나 쾌적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발전에 대한 큰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산업분야가 되고있다. 따라서 문화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포천다운 문화의 매력에 찾아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세계에 내놓을 때 문화적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지역경쟁력은 문화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의 고유 문화를 살리고 새롭게 창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문화행사는 행정의 일방적인 주도로 지역민이 빠진 축제는 단순한 행사에 불과하며 주민생활과 관계없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지방의 문화 행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때 비로소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문화의 경쟁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17)

손돌풍(孫奭風)

고려 때 뱃사공 손돌이가 임금님이 탄 배를 저어 통진 강화 사이를 운행하게 되었는데, 풍랑에 밀려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자 임금은 손돌이가 다른 뜻이 있다하여 손돌의 목을 베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로 「손돌사공」의 목을 뱀이 곳을 「손돌목」이라 하였다. 그런데 매년 10월 20일 관례적으로 불어오는 심한 바람을 「손돌풍」 「손석풍」이라고 부르며 억울하게 죽은 손돌이의

원혼이 바람이 되어 매년 심한 바람이 분다고도 하였다. 강화도 사람들은 손돌풍이 부는 10월 20일경에는 배를 타지 않는다고 전해온다. 그러나 통진과 강화도를 잇는 뱃길은 없어지고 최신식 연륙교가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니 손돌이의 혼이 원한의 바람되어 불어 왔다가 울고 가게 되었다.

손돌풍이 부는 음력 10월 20일 경에는 시식(時食)으로 만두국을

만들어 먹는다. 10월에 가정의 간식으로는 강정을 만들어 먹는다. 깨강정, 콩강정, 잣강정 등이 있으며 속국을 먹기도 한다.

또, 10월 음식으로는 「열구자탕」, 「신선로」가 있는데 두 이름의 이 음식에는 전골틀에다 쇠고기, 달걀, 파, 고춧가루, 마늘, 당근, 은행, 대추, 잣, 버섯등과 갖은 양념을 넣어 만들어 먹는데 「난로회」라고 한다. 또, 메밀만두가 별미인데 채소, 파,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두부로 소를 넣어서 장국에 익혀먹는다. 밀가루로 세모난 만두를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변씨만두라고 하는데 변씨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시작한 때문이라고 한다. 또, 손돌풍은 「동국세시기」와 「열양세시기」에 기록되어 전한다. 내 고향 포천에서는 메밀만두가 손돌풍이 불 무렵인 10월달에 많이 시작하였는데 메밀이 묵밭이나 버려진 땅에서 흔히 재배된 잡곡이었기 때문이다.

잔치상에는 「열구자탕」 즉, 「신선로」가 빠지지 않고 차려졌는데 혼례, 회갑례 등도 이에 속한다. 오즈를 궁중 음식이나 전통의례 음식에서나 볼 수 있는 「신선로」는 솜씨 있는 가문에서 자랑으로 삼기도 하였다. 올해 손돌풍이 불 무렵 신선로와 메밀만두 차려 놓고 마을 잔치라도 베풀면 어떨까? 권해드린다.

필자 연락처 02-932-2434

마이산 전주식당

백반전문 543-2826 일반음식점

생태매운탕 아구찜.탕
대구지리 전주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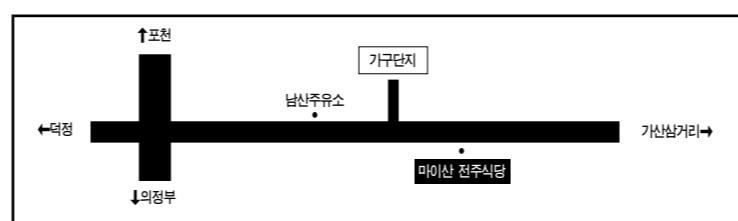
주식당 전주식당 전주식당 전주식당

- 생태매운탕 30,000원
- 대구지리 40,000원(대) 30,000원(소)
- 아구찜·탕 40,000원(대) 30,000원(소)
- 전주정식 6,000원

특유의 손맛으로 최고음식을 자랑하는

‘마이산 전주식당’

“마이산 전주식당이 양질의 음식을 선보이고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정갈한 맛과 담백한 맛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맛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362-3
예약문의 : 0311543-2825/대표 : 전 금 선